

乳癌에 對한 知識 態度 및 豫防 실천行爲에 관한 調査研究

백 정 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 최용만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I | B. 유암에 대한 지식 |
| II. 조사 대상 및 방법 | C. 유암에 대한 태도 |
| A. 조사 대상 | D. 유암예방을 위한 실천행위 |
| B. 조사 방법 | IV. 결 론 |
| C. 조사 연구의 제한점 | 참고 문헌 |
| III. 조사 결과 및 고찰 | 영문 초록 |
| A.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 |

I. 서 론

乳癌은 西歐 女性들에게서 가장 흔한 惡性 腫瘍으로 미국의 境遇 매년 6만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癌 發生 양상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어 女性 癌順位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乳癌의 發生率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自由 유산, 들 낚기 運動으로 授乳 기간이 단축된데다가, 도시 특히 經濟 事情이 潤 潤한 가정에서 모유 아닌 우유를 먹이는 일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최근 乳癌으로 死亡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자 인구의 연차적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總括적인 死亡率은 환자 10만명에 대해 24~25명 정도이다.

이런 상황下에서 乳癌은 결코 사형선고가 아니라, 早期에 만 발견하면 수술, 방사선, 약물 등의 요법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고, 早期진단과 治療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많은 研究 報告에 의하면 乳癌에 대하여 理想的이고 生理的인 치유가 發見될 수 있을 때까지에는 早期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양호하게 하는

요소로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 그 증상을 早期발견토록 하고, 나아가서는 乳癌에 對한 無知와 無關心을 깨우쳐 줌은 乳癌 예방을 위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인 것이다. 따라서 現在 서울 시내 一部 女性들이 가지고 있는 乳癌에 대한 지식, 태도를 파악하고 科學的인 調査와 진단을 기초로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계몽 교육 방안을 모색할 目的으로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II. 조사 대상 및 방법

A.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970년도 보건 통계 연감에 의하여, 8개 종합 병원에서 '75년 6월24일~8월20일까지 본 지정 병원에 內院한 외래 환자중, 1. 20세 이상의 여자 외래 환자로서, 2. 본 조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환자를 대상으로 665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3.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질병으로 고동스러워 하거나, 그밖의 이유로 대화가 용이치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조사 연구에서 그 대상을 외래 환자로 택한 것은 先行 조사 연구와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B. 조사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Gauthier and Hassel (1968)이 2,000명의 병원에 근무하는 비 전문직 요원을 대상으로, Samp and Curreri(1957)가 암 진료소에 入院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조원정 (1970)이 일부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내용중 乳癌에 해당되는 사항과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75년 6월 17일~6월 21일 5일동안 이화대학 부속 병원 외래 환자 65명에게 예비 조사를 하여 설문지 내용중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문장은 일부 수정하여 본 조사에 들어갔다.

C. 조사 연구의 제한점

본 조사 연구의 대상이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

여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문지가 표준화 되지 못하고, 신뢰도도 檢証되지 못했으며, 先行 조사 연구중 대부분이 癌에 대한 조사 연구였으므로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Ⅲ. 調 査 結 果

A. 調 査 대상자의 일반사항

調 査 대상자들의 결혼 여부를 보면, 미혼이 17.4% (116명), 기혼 82.6% (549명)로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3.4% (222명)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수준은 月 수입 1만원 以上에서 15만원 以上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심했으며 月 수입 5~10만원 群이 32.2% (214명)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신력 및 분만력

일반사항		조사수+비율		
		조 사 수	백 분 율 (%)	누적백분율 (%)
결혼 여부 연령	미 혼	116	17.4	17.4
	결 혼	549	82.6	100.0
	20 ~ 29세	280	42.3	42.3
	30 ~ 39 "	230	34.7	76.7
	40 ~ 49 "	112	17.1	93.5
	50 ~ 59 "	32	5.0	98.3
	60세 ~	11	1.7	100.0
임신 수	0 ~ 4 회	439	66.0	66.0
	5 ~ 9 "	187	28.1	94.1
	10 ~ 14 "	34	5.1	99.2
	15 ~ 18 "	5	0.8	100.0
분만 수	0 ~ 2 회	414	62.3	62.3
	3 ~ 5 "	231	34.7	97.0
	6 ~ 9 "	20	3.0	100.0
교육 수준	국민학교 졸업 이하	123	18.5	18.5
	중학교 졸업	158	23.8	42.3
	고등학교 졸업	222	33.4	75.6
	대학교 졸업 이상	162	24.4	100.0
경제 수준	~ 1만원	11	1.7	1.7
	1 ~ 5 "	163	24.5	26.2
	5 ~ 10 "	214	32.2	58.3
	10 ~ 15 "	178	26.8	85.1
	15만원 ~	99	14.9	100.0

일반사항		조사수+비율	조사 수	백분율(%)	누적백분율(%)
직	무직		569	85.6	85.6
	교사		36	5.4	91.0
업	판매업		27	4.1	95.1
	사무직		10	1.5	96.6
	은행원		8	1.2	97.8
	공무원		6	0.9	98.7
	서비스업		5	0.8	99.5
	전문직		4	0.5	100.0
합계			665	100.0	

職業 유무별 분포를 보면, 비 직업 群이 85.6% (569명)로 대부분이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群은 14.4% (96명)로 職業別로 보면, 教師가 5.4% (36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은 20~29세 群이 42.3% (280명)로 가장 많고, 조사 대상자들의 임신수는 0~4회가 66.0% (43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평균 임신수는 3.562회 (표준오차=0.132)였다. 분만수는 1~2회가 62.3% (414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분만수는 1.986회 (표준오차=0.068)였다.

B. 乳癌에 대한 知識

1. 乳癌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는 群은 75.0% (499명), 들은 적이 없는 群은 25.0% (166명)로 乳癌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群의 知識 경로를 보면, 대중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하여가 91.8% (611명), 개인매체 (환자, 이웃 사람……)를 통하여가 40.3% (268명) 지도도시매체 (보건소, 학교, 직장……)를 통하여가 11.1% (67명), 전문직 개인매체 (의사, 간호원, 약사……)를 통하여가 7.2% (48명)의 順으로 이들의 지식 경로는 우리생활 가운데서 흔히 접할수있는 대중매체 (

91.8%)나 지식정도가 분명치 않은 개인매체 (7.2%)를 통하여가 높은 반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 개인매체 (7.2%)나 제도시설 (10.1%)를 통하여 들은 群이 낮게 나타난 것은 조원정 (1970)의 결과와 일치 하였으나 병원에 근무하는 비전문직 요원들을 대상으로 癌에 대하여 조사한 Gauthier and Anna (1968)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는 대중매체를 통하여가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전문직 개인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群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자에 따라 지식 경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2. 乳癌은 전염된다고 생각합니까?

표 2에서 보면 乳癌은 전염된다는 群은 3.2% (21명), 전염되지 않는다는 群이 80.2% (533명), 잘 모르겠다는 群이 16.7% (111명)로 80% 이상이 乳癌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 별로 보면, 乳癌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국민학교 졸업 以下는 14.8%로 가장 낮은 율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乳癌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chi^2 = 41.88$, $d. f. = 6$, $P < 0.05$).

일부 사람들은 癌이 전염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나

표 2. 조사대상자의 乳癌의 전염성의 知識에 대한 교육정도 및 수입별 비교

교육 및 월수입	조사수+비율	응답		전염된다		전염안된다		잘 모름		합계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교육정도	국민학교졸업이하	10	47.6	79	14.8	34	30.6	123	18.5		
	중학교 졸업	6	28.6	121	22.7	31	27.9	158	23.8		
	고등학교 졸업	2	9.5	184	34.5	36	32.4	222	33.4		
	대학교 졸업이상	3	14.3	149	28.0	10	9.0	162	24.4		
합계		21	3.2	533	80.2	111	16.7	665	100.0		

$\chi^2 = 41.88207$ $d. f. = 6$ $P = 0.0001$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으며(전산초 1971), Diehl(1974)에 의하면, 癌은 전염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세포의 유전인자를 방해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乳癌은 유전한다고 생각합니까?

乳癌이 유전한다는 群은 17.3%(115명), 잘 모르겠다는 群이 25.1%(167명), 유전하지 않는다는 群은 57.6%(383명)로 이들의 교육 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6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이 21.9%, 국민학교 졸업이하가 13.1%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乳癌은 유전과는 관계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x^2=27.65$, $d. f. = 6$, P

< 0.01).

乳癌과 유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動物 實驗上으로는 유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人間에 있어서는 아직도 분명치 않아 現在로서는 유전인자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主要因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나(유동준 1966), 통계적으로 볼 때 유암의 소인이 있는 경우 발생율이 3~10배 정도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Mayo 1968 : Gribbons 1969),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두고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4. 乳癌은 授乳時 접촉으로 생긴 염증이 原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표 3. 분만 횟수별로 본 수유시 생긴 염증과 乳癌과의 관계 有無에 대한반응

분만횟수	응답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잘 모르겠다		합 계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1	균	48	25.4	62	32.8	79	41.8	189	28.4
2	균	76	33.8	75	33.3	74	32.9	225	33.8
3	균	68	27.1	102	40.6	81	32.3	251	37.7
합	계	192	28.9	239	35.9	234	35.2	665	100.0

* $x^2=8.71759$ $d. f. = 4$ $P=0.0686$

1균: 분만 경험이 없는 균

2균: 분만 횟수가 1~2회인 균

3균: 분만 횟수가 3회 이상인 균

乳癌은 授乳時 접촉으로 생긴 염증과 관계있다는 群이 28.9%(192명) 잘 모르겠다는 群이 35.2%(234명), 관계없다는 群이 35.9%(239명)로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들의 분만 횟수에 따라 제 1균(분만 경험이 없는 균), 제 2균(분만 횟수가 1~2회인 균), 제 3균(분만 횟수가 3회 이상인균)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群간의 知識 정도에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8.72$

$d. f. = 4$, $P>0.05$).

응답자의 약 1/4이 授乳시에 생긴 유선염이 혹은 乳癌으로 이행되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으나, 이는 乳癌으로 이행되지 않으나, 授乳시에 반드시 유두를 청결하게 함으로써 유선염의 방지와 더 좋은 자녀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乳癌은 이유 시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표 4. 조사대상자의 乳癌과 이유시기의 관계 有無에 대한 知識의 직업별비교

직업	응답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잘 모르겠다		합 계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有		158	27.8	167	29.3	244	42.9	569	85.6
無		22	22.9	28	29.2	46	47.9	96	14.4
합	계	180	27.1	195	29.3	290	43.6	665	100.0

$x^2=1.19257$ $d. f. = 2$ $P=0.5509$

乳癌이 이유 시기와 관계가 있다는 群은 27.1%, 관계없다는 群이 29.3%, 잘 모르겠다는 群이 43.6

%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직업 有無 별에 따라 보면(표 4)직업이 있는 群과 직업이 없는 群간의 지식

정도에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1.19, d. f. = 2, P>0.05$). 응답자들의 직업 有無에 따라 이유 시기를 보면 비 직업 群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群에 비해 이유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수유방법으로는 비 직업 群에서는 모유 수유가 49.9%, 인공 수유가 12.1%로 모유 수유를 더 많이하고 있어, 이를 종합해 보면, 비 직업 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群에 비해 모유 수유를 많이 하고($P<0.05$), 이유 시기는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P<0.05$), 乳癌이 이유 시기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두 群間의 지식정도에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1.19, d. f. = 2, P>0.05$). 또 이를 응답자의 분만 횟수에 따라 보면 분만 경험이 없는 제 1 群에서는 乳癌은 이유 시기와 관계없다가 21.2%, 제 2 群은 32.4%, 제 3 群은 32.7%로 분만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소 관계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x^2=8.51, d. f. = 4, P>0.05$).

乳癌은 비수유부나 산후에 인공영양을 하는 경우, 수유기간이 긴 여성보다는 짧은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높고(Shimkin 1967; Mausner 1969), 이유 시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녀가 없는 기혼녀, 자녀

수가 적거나,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金雄奎 1967; Rubin 1967; Mayo and Nancy 1968; Levin, Paul, Saxon, and Oliver 1964; 유동준 1966) 본 조사결과 乳癌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群에 대하여는 각별한 계몽교육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려된다.

C. 乳癌에 대한 태도

1. 乳癌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乳癌은 예방할 수 없다는 群이 15.2%, 잘 모르겠다는 群이 35.0%, 그리고 예방할 수 있다는 群은 49.8%로써,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법으로는 자가 진단법(Breast Self-examination)을 통하여 52.5%로 가장 높고, 개인위생, 식이 요법 및 휴식이 10.8%, 방사선 및 X-ray요법이 7.8%, 약물 요법이 3.9%, 생검이 1.1%의 順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반수 정도가 乳癌은 早期 발견 및 자가 진단법(Breast Self-examination)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이는 조원정(1970)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 乳癌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꺼립니까?

표 5에서 보면 乳癌 환자와 접촉을 별로 상관치 않

표 5. 조사 대상자의 수입별 乳癌환자 접촉에 대한 태도

응답	경제상태 ~1만원		1~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만원~		합 계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꺼린다	6	4.2	47	33.1	40	28.2	28	19.7	21	14.8	142	21.4
상관치 않는다	5	1.0	116	22.3	174	33.3	150	28.8	78	15.0	523	78.6
합 계	11	1.7	163	24.5	214	32.2	178	26.8	99	14.9	665	100.0

$$x^2=21.01271 \quad d. f. = 8 \quad P=0.0071$$

는 群은 78.6%(523명), 접촉을 꺼리는 群은 21.4%(142명)로 그 이유를 보면, 환자라고 하는 선입감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므로가 62.5%로 가장 높았고, 세균이나 또는 유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유방을 만지면 전염된다고 하기 때문이 22.9%, 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때문이 11.1%, 그리고 癌 환자들에게서는 냄새가 나서 불쾌하므로가 2.1%로 나타나 응답자 中 반수 이상이 乳癌이라는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라면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경제 수준별로 보면, 乳癌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별로 상관치 않는 群은 月 수입 10만원 이하가 43.8%로 가장 높고, 5~10만원이 33.3%, 1만원 이하가 1.0%의 順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

이 높을수록 乳癌 환자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별로 상관치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x^2=21.01, d. f. = 8, P<0.01$).

3. 乳癌은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乳癌은 완치될 수 있다는 群은 74.7%(497명), 완치될 수 없다는 群은 8.7%(58명)로 이는 Samp(1959)와 Gauthier and Anna(1968)의 조사결과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 이는 동·서양간의 癌에 대한 관심도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사려된다.

乳癌은 5년 생존율이 40~50%에 이르고 있으며 초기에 발견한다면, 80%이상을 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다. 乳癌은 3기로 나누어(Devitt and

표 6. 조사대상자의 乳癌에 대한 知識 유무별 乳癌완치 가능성에 대한 비교.

응답 조사수+비율	완치된 다		완치할수없다		잘 모르겠다		합 계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조사수	백분율
들은 적이 있다	392	78.6	41	8.2	66	13.2	499	75.0
들은 적이 없다	105	63.6	17	10.3	44	26.7	166	25.0
합 계	497	74.7	58	8.7	110	16.5	665	100.0

$$\chi^2 = 18.49862 \quad d. f. = 4 \quad P = 0.001$$

James 1971 : Mausner 1969). 제 1기는 초기 乳癌으로 암종이 유방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국소 임파선에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제 2기는 유방조직에 癌이 있어 국소 임파선에 이미 전이가 되었고, 제 3기는 他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되어서 피부 침윤·폐양과 주위 조직에 고정되어 있거나 부종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癌腫이 유방조직안에 국한되어 있을 때(제 1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면 현재 의료 수준으로 거의 완치시킬 수 있으며 또한 5년 생존율이 82%인데 반해 국소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는 5년 생존율이 47%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어 제 1기 유암, 즉 限局性 유암일 때 발견해서 수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강 석린 1971).

4. 만일 乳癌에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本人이 알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진단을 알기를 원하는 群은 68.4%로 가장 많고, 원치 않는 群은 19.1%, 그리고 12.5%가 그 상황이 되야지 알겠다고 응답해 Samp(1959)의 조사결과 보다 낮은 율을 보였으며, 같은 질문에 Gauthire and Anna(1968)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 정도가 공포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적은수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자기에게 그러한 상황이 처해져야만 판단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나타낸 群은 현재 건강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 미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자기의 진단을 알기를 원치 않는 群의 그 이유를 보면, 알면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병이 더 악화되므로가 14.1%, 癌은 불치의 병이므로 자포자기 하게 되어 죽음에 대한 공포심만 생겨 정신위생상 안 좋으므로가 2.9%, 환자가 자기의 진단을 몰라야 죽는 순간까지 편히 보낼 수가 있다가 1.8%, 암 이외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0.2%등

의 順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유가 정신적 충격 때문임을 들고 있다. 乳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진단명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나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중론에 의하면 환자가 자기의 진단을 알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굳건한 힘이 있고, 그 가족들의 요구가 없는 한은 환자에게 말해주어야 타당하며 (Samp 1959 : 전산초 1971), 환자가 무서워하거나 우울해 하는 것 같으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Francis 1969). 또한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의사나 간호원이 환자 진단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방법 및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정서적으로 잘 견디어 낼 수 있으나, 환자에게 그의 진단을 알리지 않으면 환자는 현실과는 격리되어 자신의 상상속에서 억측하게 되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불안이나 두려움 또는 고통이 심해지면, 인간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갈등과 병적인 기재를 일으키게 되어 질병의 유발뿐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어 (김조자 1971),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환자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D. 乳癌 예방을 위한 실천 행위

1. 乳癌에 대한 자가 진단법(Breast Self-examination)에 관하여 알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가 진단법을 알고 있는 群은 11.7%(78명)로 이들의 知識 경로를 보면,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라디오……)를 통하여가 5.7%로 가장 높고, 개인매체(이웃사람, 환자……)를 통하여가 2.9%, 제도시설매체(학교, 보건소, 직장……)를 통하여가 1.8%, 그리고 전문직 개인매체(의사, 간호원, 약사……)를 통하여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의 자가 진단법 실시 여부를 보면,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가 93.7% (623명), 생각날 때마다 가끔 한번씩 실시하다가 3.8% (25명), 1달에 1~2번씩이 0.5% (3명), 2~3달에 1번씩이 1.1% (7명), 6개월에 1번씩이 0.6% (4명), 1년에 1번 정도 실시하다가 0.5% (3명)로 나타나 자가 진단법을 실시하는 11.7%중 자가 진단법을 실시하고 있는 群은 6.3%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 정규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가끔 생각이 나면 한번씩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乳癌 예방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는 Cauthier and Anna (1968)의 조사결과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동·서양간의 자기의 건강 및 乳癌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또한 조사 대상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乳癌은 다른 癌과는 달리 자가 진단법이 있어 관심만 가지고 실시한다면 98%는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으므로 월경 직후 유방이 제일 유연하고 크기가 작을 때를 택하여 보통 갱년기 전에는 2개월에 1회씩 폐경기에서는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며 이렇게 하여 어떤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2. 乳癌 검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 신체검사를 받아 본적이 있는 群은 5.3%, 그리고 94.7%가 전혀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 이유를 보면, 신체적인 이유 즉, 신체적으로 별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83.6% (556명), 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들의 현재 신체 검사의 실천도를 보면, 정규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群은 2.1%, 실시하고 있지 않은 群은 97.9%로 이는 과거에 진찰을 받아 본적이 있는 5.3%보다 적어 실천도는 과거에 비해 더 낮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癌에 대한 공포는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만은 그러한 병에 안 걸리리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癌에 관련된 지식이나 그 예방을 위한 실천 행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이러한 정서적인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자가 진단법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된다고 Mayo (1968)는 지적하고 있다.

America Cancer Society (Mayo 1968)의 조사에 의하면, 지식층이나 부유층일수록 신체검사를 더 자주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조사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별 ($\chi^2=8.21, d. f. = 8, P>0.05$), 경제수준별 ($\chi^2=10.86, d. f. = 12, P>0.05$)로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앞으로 좀 더 많은 대상을 가지고 群

名해 불만하다고 사려된다.

IV. 結 論

75년 6월24일~8월20일까지 서울시내 8개 종합 병원에 內院한 외래환자 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調査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調査 대상자의 일반사항

調査 대상자 중에는 기혼이 82.6%, 미혼 17.4%로 대부분이 기혼 여성으로, 연령은 30~39세가 34.7%, 20~29세가 42.3%로 70% 이상이 20, 30대층이었다. 임신 및 분만수를 보면 임신수는 0~4회 ($M=3.562$)가 66.0%로 가장 많았고 분만수는 0~2회 ($M=1.986$)가 62.3%로 가장 많았다. 직업여성은 14.4%, 비직업 여성이 85.6%로 가정주부가 많았으며 직업여성 중에는 교사가 5.4%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75.6%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인 수준은 월수입 ~1만원에서 15만원 이상의 격심한 차이가 있었으며, 월수입 5~10만원 群이 32.2%, 다음은 10~15만원 群이 26.8%의 順이었다.

2. 乳癌에 대한 知識

가. 乳癌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 群은 75.0%, 들은 적이 없는 群은 25.0%로 이들의 知識경로는 대중매체 (TV, 신문 라디오.....), 개인매체 (환자, 이웃사람.....)를 통하여가 높은 반면 제도시설 매체 (보건소, 직장, 학교.....) 및 전문직개인매체 (의사, 간호원, 약사.....)를 통하여 알게되었음은 낮게 나타났다.

나. 乳癌이 전염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염된다는 群이 3.2%, 전염되지 않는다는 群이 80.2%, 잘모르겠다가 16.7%로 80% 이상이 乳癌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 ($\chi^2=41.88, d. f. = 6, P<0.05$), 경제적수준 ($\chi^2=25.27, d. f. = 8, P<0.05$)이 높을수록 乳癌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 乳癌과 유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전한다는 群이 17.3%, 유전하지 않는다는 群이 57.6%, 잘모르겠다가 25.1%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乳癌은 유전과는 관계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chi^2=27.65, d. f. = 6, P<0.05$).

라. 乳癌은 授乳시 접촉을 통하여 생긴 염증이 원인

이 된다는 집단이 25.4%, 관계없다는 집단이 32.8%, 잘모르겠다는 집단이 41.8%로, 이들의 지식 정도를 분만횟수에 따라 3 집단 즉, 제 1군(분만 경험이 없는 군), 제 2군(분만횟수가 1~2회인 군), 제 3군(분만횟수가 3회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집단간의 지식 정도에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8.72$, $d. f. = 4$, $P>0.05$).

다. 乳癌과 이유시기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관계있다는 집단이 27.1%, 관계없다는 집단이 29.3%, 잘모르겠다는 집단이 43.6%로 응답자중 반수 이상이 잘모르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乳癌이 이유시기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 집단간에 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1.19$, $d. f. = 2$, $P>0.05$).

3. 乳癌에 대한 태도

가. 乳癌은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예방할 수 있다는 집단이 49.8%, 잘모르겠다는 집단이 35.0%, 예방할 수 없다는 집단이 15.2%로 응답자의 반수 정도가 乳癌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법으로 자가진단법(Breast Self-examination)을 통하여가 54.4%로 가장 높고 개인위생, 식이요법 및 휴식을 통하여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나. 乳癌 환자와의 접촉에 있어서 별로 관계치 않는다는 집단이 78.6%, 접촉을 꺼리는 집단은 21.7%로 그 이유를 보면, 환자라는 선입감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므로가 62.5%, 전염되므로가 22.9%, 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때문이 11.1%, 癌환자에게서는 냄새가 나서 불쾌하기 때문이 2.1%로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乳癌이라는 질병과는 관계없이 환자라면 멀리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 乳癌은 早期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집단은 74.7%, 완치될 수 없다는 집단은 8.7%, 잘모르겠다는 집단이 16.5%로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乳癌은 早期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面으로 보고 있다.

라. 만일 本人이 乳癌에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진단명을 알기를 원하는지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집단은 68.4%, 그 상황이 되봐야 알겠다는 집단이 12.5%, 그리고 19.1%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그 이유를 보면, 환자가 자기의 병을 안다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가 14.1%로 가장 많고, 癌은 불치의 병이므로 자포자

기 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만 생겨 정신 위생상 좋지 않으므로가 2.9% 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죽는 순간까지 편히 보낼 수 있으므로가 1.8% 등의 順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유가 정신적 충격때문임을 들고 있다.

4. 乳癌 예방에 대한 실천 행위

가. 乳癌에 대한 자가진단법(Breast Self-examination)에 관해 알고있다는 집단은 11.7%, 모른다는 집단이 88.3%로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의 지식경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도시설매체(보건소, 직장, 학교...)나 전문직 개인매체(의사, 간호원, 약사...)를 통하여 보다는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라디오...)나 지식 정도가 분명치 않은 개인매체(환자, 이웃사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실지 자가진단법을 실시하고 있는 집단은 6.3%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생각이 나면 가끔 한번씩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 乳癌 검진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과거 이래로 신체검사를 받아 본적이 있는 집단은 5.3%, 그리고 94.7%가 전혀 받아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신체적으로 별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 83.6%, 다음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5.9%로 대부분이었다. 현재 乳癌 검진을 위한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집단은 2.1%로 이는 과거에 진찰을 받아 본적이 있는 집단 5.3%에 비해 볼 때 더 낮았다. $x^2=8.21$, $d. f. = 8$, $P>0.05$ 및 경제수준별 $x^2=10.86$, $d. f. = 12$, $P>0.05$ 로 보았을 때 별 유의한 차가 없었다.

참 고 문 헌

- 강석린 (1971), 「대한의학협회지」, 14 : 259-60.
 강원봉, 돈기호, 김용길, 박진영, 복상, 김기홍 (1967) 「대한의학 협회지」, 10 : 743-48.
 金雄奎 (1967), 「대한의학 협회지」, 10 : 711-14.
 金子勲 (1962), 「종합의학」, 7 : 139-42.
 김조자 (1971), "수술전 심리 간호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권산초 (1971), "암종환자의 일반적 간호문제", 「내과 간호학」, 서울:수문사, pp. 115-26.
- 최원정 (1970), 「공중보건학회지」, 7 : 475-82.
- 최중행, 김진환 (1970), 「최신의학」, 13 : 1043-47.
- 최동준 (1966), 「대한의학 협회지」, 9, No. 12, pp. 1-8.
- "肺癌과 乳癌이 늘고있다", 「한국일보」, 1975년 3월 29일, p. 4.
- "肺癌(남자), 유방암(여자)이 늘어난다", 「중앙일보」 1975년 3월 31일, p. 5.
- Antoft, Kell (1970), *The Canadian Nurse*, 66, No. 4, pp. 39-40.
- Birckley, Virginia (1967), *A. J. N.*, 67 : 278-80.
- Cholnokey, Tibor de (1943), *Surg. Gyn. Obst.*, 77 : 55-60.
- Cole, George Jr. (1966), *Annals of Surgery*, 163 : 267-71.
- Dewitt, James E. (1971), *Cancer*, 27 : 12-17.
- Diehl, Harold S. (1964), *Healthful living*, 7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Fox, Jean E. (1966), *A. J. N.*, 66 : 1217-19.
- Francis, Gloria M. (1969), *A. J. N.*, 69 : 1677-81.
- Gauthier, Sister Ruth A. and Anna Hassels (1968), *A. J. N.*, 68 : 2177-80.
- Gibbons, Carol A. and M. A. Alia Poulos (1969) *A. J. N.*, 69-1945-50.
- Hayward, John MB. FRCS (1974), *Cancer*, 33 : 593-99.
- Inegaki, Jiro, Uictorio Rodriguez, and Gerald p. Bocley (1974), *Cancer*, 33-568 : 73.
- Isler, Charlotte, *RN magazine*, December : 1974, pp. 36-38.
- Klagsbrun, Samuel O., *RN magazine*, January 1970, pp. 46-51.
- Kraft, Caxol A. and Henry T. Lynch, *RN magazine*, August 1974, pp. 27-29.
- Levin, Morton L., Paul R. Sheche, Saxon Graham, and Oliver Glidewell, A. B. (1964) *A. J. P. H.*, 54 : 580-87.
- Macdonald, Ian (1965), *Management of the patient with Cancer*, ed. Thomas F. Nealon, Jr.,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 pp. 435-69.
- Mausner, J. S., M. B. Shimkin, N. H. Moss., and G. P. Rosemond (1969), *Cancer*. 23 : 260-74.
- Mayo, Pauline M. S. and Nancy L. Wilkey, M. S (1968), *N. C. N. A.*, 3 : 229-41.
- Miller, E. B. and C. S. Kennedy (1959), *Annals of Surgery*, 150 : 993-99.
- Popma, Alfred M. (1957), *A. J. N.*, 57 : 1570-72.
- Riddervold, Hans O. (1971) *J. A. M. A.*, 14 : 261.
- Rubin, Philip (1967), *J. A. M. A.*, 199 : 732-34.
- Samp, Robert J. and Anthony R. Curreri (1959), *Cancer*, 10 : 382-84.
- Shapiro, Sam Philip Stax and Louis Venet (1971), *J. A. M. A.*, 215 : 1777-85.
- Shimkin Michael B. (1967), *Cancer*, 20 : 1039-43.
- Shimkin, Michael B. and Bethesda (1963), *J. A. M. A.*, 183 : 358-61.
- Treves, Norman and Arthur I. Holleb (1958), *Surg. Gyn. Obst.*, 107 : 271-83.
- White, Thmomas Taylor and William Crawford White (1956) , *Annals of Surgery*, 144 : 384-91.

*** Abstract ***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 Breast Cancer and
behavior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Breast Cancer**

- of Women outpatients of general hospitals in Seoul -

Jung Hee Paik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Yong Man Choi)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and behavior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breast cancer of a Sample Seoul women.

Similar studies had dealt with samples of tumor clinic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with non-professional hospital workers.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drawn by women out patients from eight centrally located general hospitals, in Seoul where the number of annual out patients exceeded 100,000, and the number of beds exceeded 100.

The interview schedule consisted 33 questions related to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prevention of breast cancer.

It was modified from the previous on cancer studies.

The investigator interviewed 665 women over 20 years of age, from those who visited these eight hospitals from 24, June to 20, August 1975.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housewives and primarily in the 20 to 29 ages group.

They had a mean level of 3.562 pregnancies and 1,986 children. 33.4% were high-school graduates, 32.2% had a monthly family income in the 50,000 to 100,000 won range.

75% of the respondents had heard about breast cancer through mass media or personal media, bu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did not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it.

This varied according to educational, economical income and occupations.

The primary reason given for maintaining distance from a patient with breast cancer was not because of cancer but simply because person was a patient.

74.7%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early cancer of the breast could be cured with early treatment.

Only 5.3% of the respondents had ever had a physical examination and only 6.3% practised self examination of the breast.